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및 해외 보전관리 동향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및 해외 보전관리 동향

1. 잇따른 수족관 내 폐사에 따른 돌고래 전시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 A. 지난 7월 20일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수컷 벨루가 루이, 22일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수컷 큰돌고래 고아롱이 연이어 폐사하며, 수족관 돌고래의 복지 문제 및 나아가 돌고래 전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일고 있음.
- B. 작년 한 해 동안에도 5마리의 전시 돌고래가 폐사. 특히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벨리의 폐사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생후 24일된 큰돌고래의 폐사로 돌고래의 반입 및 수족관 내 번식 중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C.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경우 이미 '16년 벨로 폐사 이후 돌고래 반입 중단을 선언, '19년 벨리 폐사 직후 홀로 남은 벨라의 방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방류기술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음.

2.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및 문제점

A. 전시 현황

- (1) 7월 기준 국내 총 7개 수족관에 30마리의 고래류가 전시되고 있으며, 종별로는 흰고래 7마리, 큰돌고래 21마리, 남방큰돌고래 1마리, 혼종 1마리가 사육되고 있음.
- (2) 국내에 전시되고 있는 고래류의 대부분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수입된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포획되어 수입된 흰고래(벨루가)임.
- (3) 퍼시픽랜드는 90년대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불법포획하여 쇼에 이용. 2013년 대법원 몰수 판결과 돌고래 방류운동을 통해 제돌이를 비롯 모두 7마리가 방류되었음.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비봉은 (2005.4월 제주 비양도에서 불법포획) 몰수 및 방류

대상이 되지 못해 퍼시픽랜드에 남아있는 상황,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임.

표1 국내 돌고래 전시 현황 (2020. 8. 기준)

업체	운영사	종	반입경로	개체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롯데월드	흰고래	수입	1
아쿠아플라넷 여수	한화호텔& 리조트(주)	흰고래	수입	2
아쿠아플라넷 제주		큰돌고래	수입	4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울산남구 도시관리공단	큰돌고래	수입	3
			번식	1
제주 마린파크	(주)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4
제주 퍼시픽랜드	(주)호반호텔 앤리조트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	1
		큰돌고래	수입	1
			기증	1
		혼종	번식	1
거제 씨월드	(주)거제씨월드	큰돌고래	수입	7
		흰고래	수입	4
합계 (7개소)				30

B. 폐사 현황

- (1) 지난 5년간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류는 모두 17마리로 돌고래의 폐사는 매해 계속되고 있음.
- (2) 업체별로는 거제씨월드 7마리,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3마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주 퍼시픽랜드, 아쿠아플라넷 제주 각 2마리, 아쿠아플라넷 여수 1마리임.

- (3) 폐사한 돌고래의 경우 수족관 내 생존기간은 4.6년으로 보통 3~5세에 수족관에 반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년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음.¹

표 2 최근 5개년 국내 수족관 폐사 현황

<연도별>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폐사	5	3	2	5	2	17

<업체별>

업체	종	반입경로	반입/출생일	폐사일	마리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흰고래	수입	2013.05.26.	2016.04.02.	2
	흰고래	수입	2013.05.26.	2019.10.17.	
아쿠아플라넷 여수	흰고래	수입	2012.04.28.	2020.07.20.	1
아쿠아플라넷 제주	큰돌고래	수입	2011.03.17.	2017.07.21.	2
	큰돌고래	수입	2012.06.27.	2018.03.22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큰돌고래	수입	2017.02.09.	2017.02.13.	3
	큰돌고래	번식	2019.10.04.	2019.10.28.	
	큰돌고래	수입	2009.10.08.	2020.07.22.	
제주 퍼시픽랜드	큰돌고래	수입	2015.07.30.	2016.11.13.	2
	훈종	번식	2008.06.11.	2019.10.10.	
거제씨월드	큰돌고래	수입	2013.05.10.	2016.02.14.	7
	큰돌고래	수입	2014.03.05	2016.03.31.	
	큰돌고래	수입	2013.05.10.	2016.04.25.	
	큰돌고래	수입	2013.05.10.	2017.01.28.	
	큰돌고래	수입	2014.03.05.	2018.09.04.	
	큰돌고래	수입	2014.03.05.	2019.08.02.	

¹ 최근 5년간 폐사한 돌고래 중 폐사 당시 나이가 추정 가능한 5마리의 경우, 평균 8.7세에 폐사

	큰돌고래	수입	2013.05.10.	2019.08.08.	
합계 (6개소)					17

C. 돌고래 전시의 문제점

(1) 포획-전시과정에서의 동물학대

대부분의 전시 돌고래는 야생에서 포획되어 순치 과정을 거쳐 수족관에 거래됨. 특히 일본 타이지에서 포획되는 큰 돌고래의 경우, 그 과정은 이미 잔인함으로 악명높음. 쇠막대기를 쳐 음파에 예민한 돌고래들을 작은 만으로 몰고, 전시에 적합한 외형과 크기의 돌고래만을 골라내고 나머지 돌고래는 죽여 고래고기로 유통함. 생포된 돌고래들은 좁은 가두리에서 수일, 길게는 몇주동안 굶겨져 살아있는 먹이에서 죽은 먹이에 강제로 적응시키는 ‘순치’과정을 거침. 이 순치 과정에서 사망하는 돌고래도 다수 발생² 현재 우리나라 수족관에 전시 중인 큰돌고래 21마리 중 20마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본 다이지 출신임.

(2) 먹이를 볼모로 한 돌고래쇼, 체험에의 이용

전시 돌고래들은 먹이 보상을 통해 일련의 조건화된 행동을 보이도록 훈련받고 쇼나 체험에 이용됨. 이러한 조건화된 행동은 돌고래들이 야생에서 보이는 즉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예를 들어 돌고래들이 머리만 물밖으로 내밀고 몸을 수직으로 서있는 스테이션닝(Stationing)은 야생에서 포획되어 공연에 이용되는 돌고래가 처음 배우는 동작임. 돌고래가 인간을 보면 습관적으로 물가에 다가와 명령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먹이를 기다리는 행동임. 이처럼 사육사, 조련사가 지시하는 행동을 수행해야만 먹이가 주어지는 과정은 극단적으로 표현해 구걸에

² ‘돌고래 순치중 1마리 죽어’ 울산제일일보 2009.06.21.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17>

불과함.³ 실제로 돌고래들이 조련사의 지시하는 동작과 먹이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함. ‘15년 제주도 앞 바다로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이의 경우, 퍼시픽랜드에서 전시 당시 길들여지기를 거부해 수족관 내실에 갇혀있어야만 했음.

현재 고래류를 전시하고 있는 7개 수족관 중 5곳이 여전히 돌고래쇼를 진행, 2곳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제주 퍼시픽랜드와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경우, 인위적 스토리와 동작으로 가득 찬 돌고래, 바다사자 및 원숭이쇼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설명회의 형식을 취하는 아쿠아플라넷 여수,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의 경우에도 쇼동작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거제씨월드와 제주마린파크는 고액의 이용권 판매를 통해 돌고래의 등 지느러미를 잡고 매달리는 돌핀스위밍, 돌고래 등을 서핑보드처럼 타는 라이드 체험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표 3 국내 수족관 업체 돌고래 쇼 및 체험 현황

업체	공연		체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x		x	
아쿠아플라넷 여수	△	벨루가 생태설명회 - 하루 2회 - 지시에 따라 인사 동작 등 포함	x	
아쿠아플라넷 제주	○	돌고래, 바다사자쇼 - The Greatest Ocean & 아쿠아 스토리 40분 하루 4회	x	
고래생태체험관	△	고래 생태설명회 - 10분 하루 3회 - 농구공 갖고 놀기,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점프하기 등 쇼동작 포함	x	

³ Animal Welfare Association+World Animal Protection, The Case Against Marine Mammals in Captivity, 2019

제주 마린파크	△	생태설명회 - 하루 5회 - 돌고래 장기자랑 포함	○	- 돌핀스위밍 - 돌고래 조련사 체험
제주 퍼시픽랜드	○	돌고래, 바다사자쇼 - 마린 스테이지 50분 하루 3회	X	
거제 씨월드	○	돌고래쇼 - 돌핀 프레젠테이션 20분 하루 3~4회 - 벨루가 수중 공연 10분 (코로나로 임시중단)	○	- 돌핀 교감체험 3회 - 벨루가 교감체험 3회 - 돌핀 아쿠아체험 2회 - 벨루가 아쿠아 체험 2회 - 돌핀 스윔체험 2회 - VIP 라이드 체험 2회

(3)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 문제

전시 고래류는 수족관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단순한 환경에서 오는 행동적 제약, 사회적 관계의 부재, 심각한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됨. 수족관 돌고래의 높은 폐사율은 이들이 위협에 처해있음을 증명. 돌고래는 야생에서 평균 25년 이상을 살지만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의 경우 수족관 생존기간은 4.6년으로 보통 3~5세에 수족관에 반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년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음.⁴ AWI와 WAP에 따르면 미국, 유럽의 67개 전시시설 조사 결과, 전시 상태의 큰돌고래(Bottlenose Dolphin)의 평균수명은 12.75년으로 야생 돌고래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었음.⁵

전시 돌고래들은 영양불균형, 부적합한 사육환경으로 정기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항생제, 항균제 등을 투여받음. 고래류의 주요 폐사 원인인 폐렴(Pneumonia)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으로 나타나는 이차적인 결과로 부검을

⁴ 최근 5년간 폐사한 돌고래 중 폐사 당시 나이가 추정 가능한 5마리의 경우, 평균 8.7세에 폐사

⁵ 앞의 보고서

통해서도 폐렴의 초기 원인은 밝혀지기 어려움. 폐사 돌고래는 식욕이 감소한지 하루, 이틀 만에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며 이는 고래류가 수의학적으로 관리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⁶

(4) 비인간인격체로서의 돌고래

돌고래 사육과 전시와 관련한 도덕적, 윤리적 논쟁은 돌고래가 높은 지능과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라는 점에서 시작. 흔히 돌고래는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의식과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의미하는 ‘비인간인격체’(non-human person)로 불림. 그 수준에 차이는 있으나, 이미 돌고래가 사고할 수 있으며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각기 자의식을 갖고 다른 개체를 구분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 돌고래의 자의식은 결국 전시 돌고래가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등을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행동신경학자이자 돌고래 전문가인 로리 마리노 박사는 돌고래는 갇힌 상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성장장애를 겪으며,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자살이라고 표현⁷

3. 해외 돌고래 보전 관리 동향

A. 돌고래쇼 및 돌고래 전시의 축소

(1) 이미 돌고래 전시가 존재하지 않거나 금지 된 나라가 많으며, 돌고래 전시가 남아있는 나라도 점차 돌고래 전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영국은 1993년 마지막 고래 수족관이 문을 닫았으며, 유럽연합 28개 국가 가운데 돌고래 수족관이 없는 나라는 15개국에 이룸.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돌고래 전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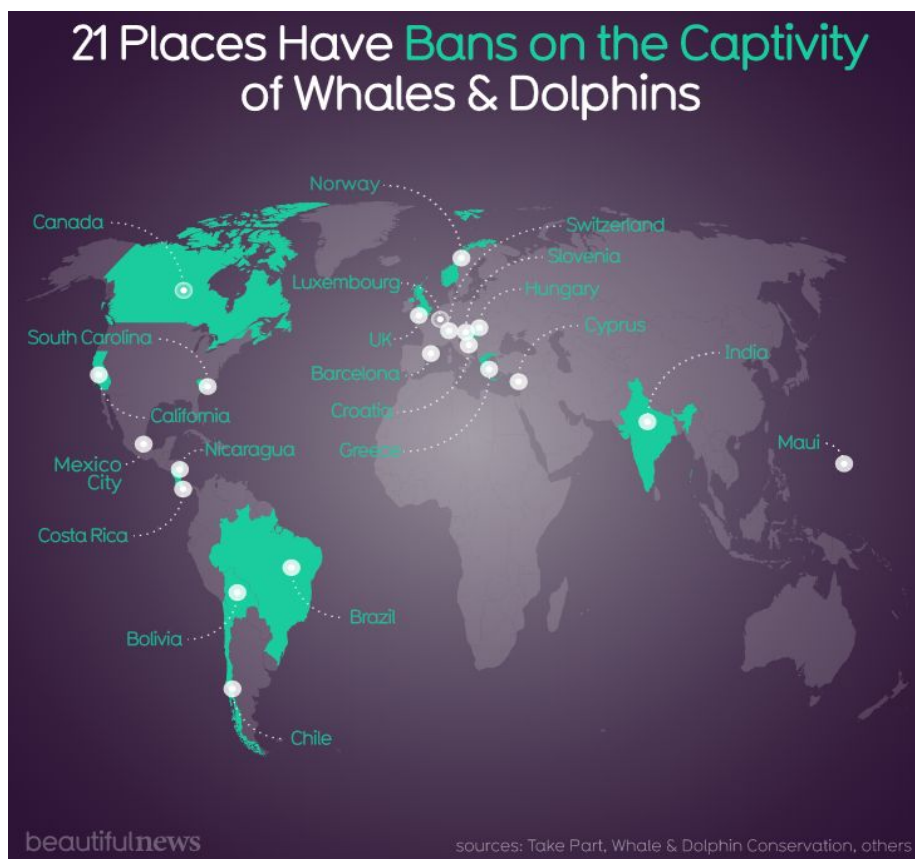
⁶ 앞의 보고서

⁷ What it means to say a dolphin committed suicide, 2014. 6. 13. HuffPost
https://www.huffpost.com/entry/dolphin-commits-suicide_n_5491513

보이고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밴쿠버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돌고래 수족관을 금지

표 4 돌고래 전시를 규제, 금지한 나라들

구분	내용
영국	1988. 돌고래 수족관의 기준 강화 1993. 마지막 남은 돌고래 수족관 폐원
미국	2017. 1월 캘리포니아주, Orca Welfare and Safety Act 발효 전시 및 오락 목적 범고래의 포획 및 사육 금지
인도	2013. 5월 중앙정부돌고래 수족관 폐쇄 공식성명 발표
스위스	2012. 하원, 돌고래 전시 불법 규정, 상원 돌고래 수입 금지 2013. 마지막 남은 돌고래가 자마이카로 거래
캐나다	2019. 6월 고래류 전시 금지 The Ending the Captivity of Whales and Dolphins Act 법안 통과
헝가리	1992. 불법 수입된 큰돌고래 반환, 마지막 돌고래 수족관 폐원 및 추가 수입 금지



이미지 출처 : beautifulnews

B. 돌고래 전시의 대안으로서의 바다쉼터(생츠퍼리)의 마련

(1) 바다쉼터(Seaside Sanctuary)의 개념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생츠퍼리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을 원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 돌고래 바다쉼터(생츠퍼리) 또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수족관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성. 주로 바다의 만 지형을 이용하여 만의 한쪽을 막아 그 안에서 돌고래를 보호하거나, 해상 가두리 형태로 진행

(2) 바다쉼터의 필요성

돌고래 전시에 대한 윤리적 대안으로 방류가 이야기되나, 사람에 의해 포획되어 이미 오랜 기간 전시 및 쇼에 이용된 돌고래의 경우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임. 방류를 위해 돌고래는 수족관과는 전혀 다른 자연환경과 중단된 먹이활동에 재적응하고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야 함. 어릴 때 포획된 개체일수록, 감금 기간이 길수록 방류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짐. 또한 아무리 자연조건이 유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원서식지가 아닌 곳에 방류할 경우, 교잡의 가능성 등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를 고려하며, 보호할 수 있는 생츠퍼리가 필요

(3) 해외 바다쉼터 현황

이미 해외에서는 일찍이 Seaside Sanctuary 개념이 논의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와 아이슬란드 헤이마예이섬에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인 생츠퍼리 또한 존재. Bali Dolphin Sanctuary의 경우, Dolphin Project가 인도정부와 협동으로 조성, 돌고래쇼를 운영하던 멜카호텔에서 구조된 돌고래 3마리가 지난 7월 이주하였음.



인도네시아 발리에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 Bali Dolphin Sanctuary

아이슬란드의 Beluga Sanctuary는 Sea Life Trust와 WDC가 협업한 결과로
 헤이마에이섬의 클레츠빅만을 이용해 조성. 씨라이프는 고래류 전시, 사육을 중단한
 세계최대 수족관 업체로 2012년 벨루가를 전시 중인 중국 상하이 창펑 수족관을
 인수함. 자사 방침에 따라 벨루가 전시 중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던 중 어린 나이에
 포획된 리틀 그레이와 리틀 화이트가 야생의 무리에 합류할 수 없다고 판단, WDC와
 함께 생츠퍼리 계획을 발표, 추진함. 두 마리 벨루가는 일년 이상의 긴 여정 끝에 지난
 8월 생츠퍼리(Open Water Sanctuary)로 이주 완료



자연의 만을 이용한 아이슬란드 Beluga Sanctuary

이 외에도 미국의 국립 볼티모어 수족관, 웨일 생츠퍼리 프로젝트, 돌핀 프로젝트는 현재 고래류를 위한 생츠퍼리를 추진 중임. 볼티모어 수족관은 2023년까지 생츠퍼리를 조성하여 현재 사육 중인 큰돌고래를 옮기겠다는 계획이며, 로리 마리나 박사를 주축으로 출범한 웨일 생츠퍼리 프로젝트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 은퇴한 범고래와 벨루가를 위한 생츠퍼리를 추진 중임.

표 5 운영중인 생츠퍼리

구분	추진주체	위치	운영 현황
Adelaide Dolphin Sanctuary	South Australia National Parks and Wildlife Service	호주 애들레이드	- 40여마리 돌고래 보호구역 - 300마리의 야생 돌고래들도 정기적으로 방문
Beluga Sanctuary	Sea Life Trust WDC (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아이슬란드 헤이마에이섬	- 세계 최초의 벨루가 생츠퍼리 - 만에 네트를 둘러, 생츠퍼리 조성 - 상하이 수족관에서 전시되던 벨루가 2마리 이주
Bali Dolphin Sanctuary	DOLPHIN PROJECT ⁸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발리 천연자원보호국 등 협업)	인도네시아 발리	- 생츠퍼리와 함께 세계 최초 돌고래 재활 센터인 캠프 롬바롬바 운영 - '19년 멜카 호텔에서 쇼에 이용되던 돌고래 3마리 구조, 지난 7월 생츠퍼리로 이주

⁸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발리 천연자원보호국(BKASDA), 자카르타 동물보호네트워크, 돌핀 프로젝트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돌핀 프로젝트가 운영 중

표 6 건립 예정 생츠퍼리

구분	추진주체	위치	목표시기
Dolphin Sanctuary	미국 볼티모어 National Aquarium	플로리다주 카리브해 연안	2023년 - 생츠퍼리 마련하여, 전시중인 큰돌고래 이주 계획
Whale Sanctuary	The Whale Sanctuary Project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포트 힐포드	2021년 말 - 생츠퍼리 설계 진행 중
Dolphin Sanctuary	DOLPHIN PROJECT	유럽, 동남아시아, 일본 등	- 추가 생츠퍼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이트 분석 中



볼티모어 수족관이 추진 중인 Dolphin Sanctuary 조감도

4. 향후전망 및 결언

- A. 살펴본 바와 같이, 돌고래 사육과 전시를 축소하고 나아가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사회 또한 돌고래 전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전시 중단을 촉구하는 돌핀 프리의 흐름이 자리잡았음. 이미 우리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서울시의 결단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시사육중인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를 원서식지인 제주도의 바다로 돌려보낸 경험이 있으며, 최근 거제씨월드의 벨루가 체험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는 5만 여명의 시민이 동의하며 돌고래 전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또한 고래류 뿐 아니라 모든 해양포유류의 수입 및 전시 금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문제제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돌핀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돌고래의 신규유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남은 개체들의 복지를 위한 방류와 생츄어리의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B. 전시 돌고래 신규 유입 제한을 위한 제도적 보완

(1) 수족관 시설 및 돌고래 복지 기준 강화

일차적으로 남은 전시 돌고래의 복지를 위한 수족관 시설 및 돌고래 복지 기준 강화가 필요함. 이는 돌고래의 복지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돌핀 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함.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사육 및 시설에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부재함.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의한 사육시설 설치기준만 존재할 뿐이며 이 또한 마리당 수표면 면적 84㎡, 깊이 3.5m, 한마리 추가시 마리당 사육면적의 35%만 증가 적용되어, 해외와 비교하면 협소한 수준임.

EAAM(유럽수족관포유류협회)의 경우, 큰돌고래 1마리에서 6마리까지를 기준으로 최소 수표면 면적 550㎡, 깊이 3.5m, 부피 2,000㎡를 요구하고 있어, 마리수가 6마리 보다 작을 지라도 이 기준을 지켜야 함. 또한 5년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10년 이내에 규모를 증설하거나, 수족관의 문을 닫아야 함. 또한 신규 진입하는 수족관의 경우 진입 시점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⁹ 영국 또한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규 진입을 막고, 자연히 기준에 맞지 않는 수족관이 폐원함으로써 돌핀프리로 나아갔음.

⁹ European Association for Aquatic Mammals(EAAM)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quatic mammals under human care(version March 2019), 2019

(2) 수입 및 수족관 내 번식 금지

국내 수족관의 잇따른 폐사와 비판적 시각의 확대로 사실상 신규 업체가 진입할 가능성은 작으나, 문제는 기존 업체들의 돌고래 추가 반입과 수족관 내 번식을 통한 전시 돌고래의 증가 가능성임. 특히 롯데, 한화 등 대기업에 비해 여론이 주목하지 않는 제주 마린파크 및 퍼시픽랜드와 체험을 지속하는 거제씨월드, 교육 및 연구를 내세우며 새끼 돌고래의 폐사에도 번식을 지속 시도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현행 야생생물법은 '18. 3월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허가기준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큰돌고래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11월 광주고등법원은 제주 마린파크의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 수입을 불허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족관 내 번식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만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체 추가시 보완해야 하는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번식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함.

C. 돌고래 전시의 대안 마련 : 한국 바다쉼터의 추진

- (1) 무엇보다 돌고래 전시 대안으로서 한국 바다쉼터의 추진이 필요함. 국내 전시중인 개체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일본에서 포획된 개체로 원서식지로의 방류 성사 및 방류 후 이 개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 특히 여전히 포경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 타이지에 큰돌고래를 방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대안으로서 바다쉼터의 추진이 필요함. 이미 '18년~'19년 서울동물원의 마지막 남은 큰돌고래인 태지(현재 퍼시픽랜드 대니)의 거취 논의 당시 시민사회는 바다쉼터 마련을 요구했으며 가능 후보지로 제주 성산읍 오조리 등을 제안한 바 있음.

- (2) 바다쉼터 마련을 위해서는 입지, 어류자원, 수온, 조류, 오염 및 수질 문제부터 법적 규제, 해당 지역사회와의 협의까지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일임은 분명. 하지만 우리 사회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직 바다쉼터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 이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제 시민사회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학계 등 전문가가 함께 돌고래 전시의 단계적 축소를 결정하고, 바다쉼터 마련을 논의해야 함.

[참고문헌]

Animal Welfare Association+World Animal Protection, The Case Against Marine Mammals in Captivity, 2019

European Association for Aquatic Mammals(EAAM),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quatic mammals under human care(version March 2019), 2019

[참고 사이트]

<https://www.environment.sa.gov.au>

<https://aqua.org>

<https://belugasanctuary.sealifetrust.org>

<https://whalesanctuaryproject.org>

<https://www.dolphinproject.com>